

# 드라마 인기 소재된 '기억상실증'

“기억이 나질 않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머리를 쥐어뜯고 뒤라도 기억의 단초가 될만한 것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별반 소용이 없다.

기억상실이라는 소재는 온갖 드라마에서 그간 솔하게 써먹었지만, 최근에는 그 활용범이 업그레이드됐다는 특징이다.

앞뒤 맥락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서사와 나름의 개연을 안고 등장한다. 덕분에 ‘막장’이라는 비난은 피하고, 드라마의 극적 긴장감을 높여준다.

과거 드라마에는 기억상실이 주로 교통사고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막장’ 드라마에서 엉성할 스토리를 복잡하게 꼬기 위한 ‘알은 수’로 등장했다.

요즘에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MBC TV ‘미생나인’은 비행사 추락사고로 무인도에서 표류하다가 4개월만에 사회로 복귀한 라봉희(백진희 분)가 지난 4개월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SBS TV ‘피고인’은 열혈 검사 박정우(지성)가 딱 하룻밤의 일만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기억이 삭제된 그날 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MBC TV ‘불어라 미풍아’에서는 미풍이의 아버지 김대훈(한갑수)이 탈북 과정에서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뒤 기억을 잃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세 작품 모두 인물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상실이 발생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판타지도 가세했다. tvN ‘도깨비’에서는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SBS TV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는 인어가 사람의 기억을 자유자재로 지워버렸다. ‘도깨비’는 김은숙 작가, ‘푸른 바다의 전설’은 박지은 작가가 쓴 작품이다. 현재 최고 몸값을 받는 인



오마이 김비 미생나인  
피고인 불어라 미풍아

‘피고인’ ‘도깨비’ 등 인기작 잇단 등장  
막장 비난 피하고 극적 긴장감 높여줘  
의학적 접근 늘면서 점차 진화

기 작가가 들어 우연히도 같은 시기, 같은 판타지 장르에서 기억상실을 주요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희귀병도 있다. KBS 2TV ‘오 마이 김비’는 아동성치매 니만피크 병을 소재로 10살 소녀 김비(허정은)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을 조망했다.

정신과 전문의 최병하 여주 세인병원 과장은 “기억은 지극히 생물학적 증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생물학적 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관념적, 예술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억상실은 크게 기질성 기억상실과 심인성 기억

상실로 나뉜다. 전자는 뇌경색, 뇌종양, 전기 충격, 멀미약 등 약물, 알콜 등을 통해 뇌가 손상될 경우 발생한다. 후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배신, 생명의 위협 등 극심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뇌를 손상한 원인이 제거되면,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기억이 돌아온다.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가 술이 깨면 기억이 돌아오고, 트라우마가 극복되면 기억이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데 심인성 기억상실의 경우는 진단과 감별이 어렵다. 뇌병, 허위장애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짓 기억상실’인데, 드라마에서 써먹기 딱 좋은 대목이다.

‘도깨비’나 ‘푸른 바다의 전설’의 경우는 전생의 기억도 다루고, 최면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도 그렸다. 최 과장은 “기억은 경험을 뇌에 저장해두었다가 다시 불러내는 것인데, 최면은 기억을 불러오기보다는 무의식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심리적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생을 기억해내는 등의 주술적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막장은 신의 배려”라는 ‘도깨비’의 대사에 대해서는 “문학적 표현이지만 인간에게 망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나쁘고 힘든 일은 어느 정도 잊어야 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성 SBS 드라마 본부장은 “기억은 이야기를 확장하는 장치이자, 뻔한 이야기 구도를 뒤집는 반전의 장치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기억상실을 아주 단순하고 뻔하게 써먹었다면, 요즘은 의학적으로 접근해 개선될 수 있게 활용하고 있다”며 “기억상실이라는 소재의 변종들이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측성을 담보로 하기에 극성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숙·박시연·윤소아·이다해·장신영

## 다섯 여배우의 화끈한 입담

KBS 2TV ‘하숙집 딸들’ 14일 첫 방영

여배우 5명의 동반 출연을 예고해 화제를 모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이 첫 방송을 앞두고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tv.naver.com/v/1428246)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하숙집 딸들’에는 스타 여배우 이미숙, 박시연, 장신영, 이다해, 윤소아가 출연한다. 여기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방송인 박수홍과 토크쇼에 능한 개그맨 이수근까지 합류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티저 영상은 하숙집 주인이자 엄마인 이미숙부터 첫째 딸 박시연, 둘째 딸 장신영,

셋째 딸 이다해, 막내딸 윤소아를 소개하고 있다.

영상에선 ‘KBS 드라마 하숙집 딸들’로 처음 소개되지만 이내 거짓임이 드러나고 ‘리얼토크 버라이어티 하숙집 딸들’로 바뀌어 어떤 예능이 탄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여배우의 이미지를 던져버린 이미숙의 화끈한 입담과 여배우들끼리 꼬인 죽보를 풀어내는 과정이 영상에 담겨 웃음을 준다. 여배우들이 박병의 ‘애라 모르겠다’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드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14일 밤 11시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책 문외한 노홍철 책방 주인 되다

KBS ‘책번개’ 12일 첫 방영

책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몰랐던 방송인 노홍철이 문득 책에 꽂혀 새내기 책방 주인까지 됐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은 있다. 오는 12일 첫 방송 될 KBS 1TV 새 프로그램 ‘책번개’에선 각자의 인생을 바꾼 책과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책번개’는 기존 프로그램 ‘tv책’의 새로운 시즌이다. 이번 시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 파티를 연다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주제를 정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MC는 노홍철이 맡았다. 그의 지원군으로는 각종

문학상을 휩쓰는 젊은 작가 장강명(이하) 함께 한다.

첫 번째 주제는 ‘나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 그 땀한 첫 경험’이다.

노홍철이 자다가도 외운다는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의 구절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됐을 때 보게 된 책인데 직접 그가 걸었던 길을 책 속에서 다시 보니 놀라울 정도로 책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첫 방송에선 ‘순례자’가 노홍철에게 안겨 준 경험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필가 전혜린의 평전인 ‘아! 전혜린!’과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독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2일 밤 11시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체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힐링다큐 3부작 (나루야 나루야) (재) 55 숲터 (재)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주말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미생나인) (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 55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설특집 국민 골든벨	00 비타민 (재)		
2	50 노래가 좋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재) 55 프리파라 2	00 SBS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이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로고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온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숲터 VR 신년기획 지붕없는 박물관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KBS 스페셜 신년기획 2부작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리더십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 맛기행 - 청도 음식탐험)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최고다! 흥기상 천구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할 엄마 10:30 한국기행 (아시아 맛기행 (일본 소고기 들깨탕과 실부추 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체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국립학원-에너지수확연구원)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빵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탈함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콩 16:30 Why - 최고왕! 호기심떡지(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20:40 다큐 오늘 (수신시장의 갑여사 세르피야) 20:50 세계테마기행 (인살라, 모로코 - 패스 9천 개 골목을 만나다) 21:30 한국기행 (암자기행 - 배꽃 같은 스님을 만나다.) 21:50 EBS 다큐 프리덤 22:45 극한직업 (겨울 조개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 (음 1월 12일 丙寅)
子	48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기소왕이를 하리라. 60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할 것이다. 72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리라. 84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8, 85	4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이다. 54년생 예상치 보다는 못 미치나 도움은 될 것이다. 66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78년생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90년생 차이가 심하다. 행운의 숫자 : 92, 94
丑	49년생 밤잠하다가는 어찌구무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느니라. 61년생 짧은 시간 동안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73년생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겠다. 85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73, 30	43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55년생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67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 없이 진행되리라. 79년생 밤잠하지 말라. 91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02
寅	50년생 이전에 어긋남이 없어야 오래 갈 것이다. 62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74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86년생 확실한 기회라고 볼 수 있으니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05, 64	44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56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를 확실히 성취하는 시제이다. 68년생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 80년생 방치한다면 더 어렵게 만든다. 행운의 숫자 : 47, 93
卯	51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63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이다. 75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87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행운의 숫자 : 82, 67	45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입장의 차이를 벗어 놓고 흥금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69년생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81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60, 29
辰	52년생 표면의 현상을 예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64년생 처세를 원만하게 하면 행운이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76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아 살펴볼 일이다. 88년생 되풀어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3, 44	46년생 특별한 판세이니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58년생 형심이 기대지 이상의 성과를 안겨준다. 70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82년생 과감히 개선하라. 행운의 숫자 : 07, 32
巳	53년생 생산적인 관계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65년생 생활화한다면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77년생 잘 살펴보고 모색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리라. 89년생 알고 있다더라도 현연히 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58, 46	47년생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59년생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71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83년생 드러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04, 68